

보도 일시	2022. 7. 26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2. 7. 26.(화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 고상범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 윤영주 (02-2100-2851)
			사무관 김수아 (02-2100-2906)

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, 「금융리스크 대응 TF」 회의 개최 - “금융안정계정”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-

주요 내용

□ 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통해 크게 3가지 사항을 논의

- 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“금융안정계정” 도입방안 마련
- ② 그간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재점검
- ③ 가계대출 위험요인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점검

□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‘22.7.26일(화) 09:00시에 유관기관(금융위·금감원·예보) 합동 제3차* 「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제1차·제2차 회의는 각각 5.18일, 6.23일에 개최(금융위 보도자료 참조)

□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「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,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」고 평가하면서,

- 「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, 8월 발표예정인 한국·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」을 당부하였습니다.
- 또한 「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여,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」고 언급하였습니다.

□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“금융안정계정” 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,

○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·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※ 구체적 도입방안은 “금융안정계정 도입(안)(금융위 구조과, 7.26일)” 보도자료 참조

□ 한편, 과거 금융위기*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,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하였고,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* '97년 외환위기,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, '20년 코로나19 위기 등

○ 특히,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,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

○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,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,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□ 이와 함께,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(NICE신용평가)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·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·논의하였습니다.

□ 차기 회의는 8월말 경 개최하고,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,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 고상범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 윤영주 (02-2100-2851)
			사무관 김수아 (02-2100-2906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 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수빈 (02-2100-2833)
<공동>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 손성은 (02-2100-2910)
		담당자	사무관 성보경 (02-2100-2914)
			사무관 남창우 (02-2100-2903)
			사무관 이준협 (02-2100-2904)
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김병철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곽범준 (02-3145-8001)
<공동>	예금보험공사 금융제도개선부	책임자	부 장	유대일 (02-758-0301)
		담당자	팀 장	이팽흠 (02-758-0302)

